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2(월) ~ 2022.5.6(금)

제공일시 2022 05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2(월) ~ 2022.5.6(금)

제공일시 2022 05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럽판 ‘구글 갑질 방지법’ 온다…매출 10% 벌금 때리는 DMA 시행 임박

- 유럽연합(EU)이 메타·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2023년 봄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DMA는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며, 앱 마켓이나 온라인 광고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음
-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반독점정책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 경쟁 정책 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컨퍼런스에서 “EU의 DMA 시행 목표 시점은 2023년 봄” 이라면서 “DMA 시행을 위한 직원 채용과 IT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 과정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음

(블로터 2020.05.09.) 정두용 기자
<https://www.bloter.net/newsView/10222555004>

2. EU, 2025년까지 수소 용량 10배 확장 계획

- EU 집행위와 주요 산업그룹은 2025년까지 전해질 제조능력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포함해 유럽에서 수소 생산용량을 10배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EU 집행위는 재생수소 생산량을 1000만톤으로 늘리고, 수소 수입량도 1000만톤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소 프로젝트 확대, 원자재 파트너십 개발, EU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 증가 등을 포함함

(ESG today, 2022.5.6)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energy/2022/05/06/eu-hydrogen-capacity-by-2025/>

3. 미, ‘환경정의’ 당국 신설…“취약층 집중되는 환경오염 막는다”

- 미국이 부당하게 환경 피해를 본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에 ‘환경 정의’ 당국을 신설한다고 발표
- 미국은 환경법과 시민권 법령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고통을 감소시킬 방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폐지됐던 환경보충사업(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SEP)도 부활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앞으로 탄소중립이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실업과 재교육 이슈는 더욱 큰 문제로 여겨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2.5.6) 신재우 기자
<https://www.yonhapnews.co.kr/View/WG20220506102000579041205m>

1. 바이든 행정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 늘리기 위해 4조 넘게 지원

- 바이든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를 늘리겠다고 발표함**
- 미국 에너지부는 “배터리 제조, 처리 및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1억6000만 달러(4조37억원)를 지원하겠다”라면서, “이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용을 낮춰 배터리 생산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자금은 연방 보조금을 통해 분배될 예정이며, 각 연방 관리들은 기술 및 상업적 검토, 평가를 거쳐 배터리 제조, 재활용 시설 설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2.5.3) 유미지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code=317>

2. 해외 연기금, 기후변화 대응 미흡·이사회 다양성 부족으로 “이사 선임 반대”

- **외국 연기금들이 올해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사회 다양성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짐**
- 국제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와 아이에스에스(ESS) 등은 올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 라인에 기후변화 관련 공시와 이사회 다양성 강화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는 오리온, 일진머티리얼즈, 팬오션 등에 기후변화 관련 공시 미흡을 이유로,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음
-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플로리다연기금이 교보증권, 대한해운, KCC, 메리츠금융그룹 등의 이사 후보 선출에 반대표를 던졌고, 온타리오교직원연금도 SK하이닉스에 반대표를 던져서 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한겨레, 2022.5.9) 이정훈 기자
https://www.han.co.kr/economy/economy_g004/202205.html

3. 3월엔 ‘도쿄 블랙아웃’ 위기라더니…日 재생에너지 발전 ‘일시 중지’ 왜?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 일본에서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을 일시 정지시키는 ‘출력 제어’가 크게 늘어남**
- 지난달 도호쿠전력과 시코쿠전력, 주코쿠전력 등이 각각 관내 처음으로 출력 제어를 실시했고, 이번에 홋카이도전력이 가세. 재생에너지가 주로 넓은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 반해, 전기 수요가 많은 도쿄 등 대도시까지 연결하는 송전망은 취약하기 때문에 전력 잉여 문제가 발생한 것
- 일본 경제 산업성은 관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만 늘리면 2030년에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에서 연간출력 억제율이 40%를 넘어 절반에 가까운 전력이 낭비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한국일보, 2022.5.9) 최진주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Z=202205090329054944>

4. 일본 정부 ‘그린 GDP’ 만들어 여름에 공표

- 일본 정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새로 만들어, 올 여름 발표할 예정임
- NHK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과 별도로, 환경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를 수치화한 ‘그린 GDP’를 만들어 올 여름에 발표할 계획**을 밝힘
- 이는 환경까지 생각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내각부는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그린 GDP를 참고해, 온실가스 양을 조사한 후 실제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함
- 그린 GDP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성장률이 올라감

(한겨레, 2022.5.9) 김소연 기자
<https://www.han.co.kr/international/g004/202205.html>

1. 전경련,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제출함
- 20대 과제에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시티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윈스톱 서비스 마련 등이 포함
- 또, 전경련은 민관합동 클린에너지 시티 조성을 제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본 주장함

(이데일리, 2022.5.3) 최영지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NewsView.asp?NewsID=20220503130028&cat=121&rel=1>

2. "삼성이 애플과 게임이 안되는 이유"... 외신의 뼈아픈 진단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삼성전자의 한국과 베트남 제조시설의 전력소비량은 80% 이상으로 대부분 석탄,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함. 애플과 TSMC, SK하이닉스 등이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캠페인 RE100*에 동참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함
- 삼성전자의 RE100 참여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FT는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스코프3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특히 FT는 삼성전자의 탈탄소화 속도가 늦는 이유로 한전으로 값싸게 공급받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 때문인데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절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함

(머니투데이, 2022.5.9) 송지유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220509080808&cat=121&rel=1249449494>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3. "국민연금, 대체투자 ESG 적용 노력 미흡"

-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내 운용기관의 ESG 투자현황 및 정책-대체투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나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책임투자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
-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자산에 대해서는 ESG통합전략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책임투자 방안이 아직 수립돼있지 않음
-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전체의 15%를 대체투자에 집행할 계획인데, 공동투자가 많다는 이유로 대체투자의 책임투자 방안을 수립하지 않지만, 전담 인력을 두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편, KIC는 대체투자에도 ESG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SG리뷰제도를 운영. MBK파트너스도 실무과정에서 ESG위험을 반하고 있음

(이데일리, 2022.5.4) 조혜영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NewsView.asp?NewsID=20220504130042&cat=121&rel=121944949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5.2(월) ~ 2022.5.6(금)

제공일시 2022 05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화한 캘리포니아, “청정 전력망 미래 제시해”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달 30일 잠깐 동안 전력 수요의 99.87%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

(Bloomberg, 2022.5.5) Nathaniel Bullard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05/california-s-all-renewable-moment-shows-the-future-of-the-power-grid-is-green>

- 오후 2시부터 1시간 남짓에 불과했지만 “재생에너지가 100% 가까이 캘리포니아 전력 수요를 충족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통해 청정 전력망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한 것
지난해 덴마크(풍력)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태양광)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화 했던 적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80% 이상의 전력을 책임지는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가 100% 수요를 충족했다는 점은 규모나 정도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풀이

- 무엇보다, 인구 4000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100% 재생에너지화를 실현했다는 점은 대도시의 청정 에너지 전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전력망에는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이 공급되며 인접 주에서 수입한 전력과 배터리로 전력망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이 시스템을 통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고, 최소한도의 탄소 배출만을 허용하고 있음

-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화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캘리포니아는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규모를 확대시켜 2045년까지 목표화한 전체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화에 접근할 방침

- 전력망에 위치한 배터리는 전력 수요가 적은 동시에 바람이 많이 부는 밤 시간 대에 풍력을 통해 전력을 저장하게 됨. 밤새 풍력으로 저장된 전력은 태양광 발전량이 높아지는 무렵까지 사용되며, 정오 이후는 태양광이 배터리에 저장. 이처럼 밤에 생산되는 풍력이 낮에, 낮에 생산되는 태양광이 저녁에 전력으로 사용되는 순환성 가운데 배터리가 전력 저장과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것

- 하지만 이 순환적 시스템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100% 재생에너지화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 개선’이 필수적임

-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성능으로는 지역내 생산되는 모든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지 못함. 지난 30일 전력 수요의 99.87%를 재생에너지원을 충당한 순간에 배터리 성능 제한으로 29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에너지가 출력 제한(Curtailment)된 것으로 나타남

- 출력 제한이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과도하게 많은 시점에 송배전망 사업자가 계통 안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출력을 직간접으로 차단하는 것을 뜻함. 전력망에 초과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흘려 보내면 과부하가 발생하고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출력제한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캘리포니아에서 전력계통의 수급균형을 모니터링하는 CAISO(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에 따르면, 2014년부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제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의 출력제한 양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제한 양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출력 제한은 어떤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 사용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뜻함. 때문에 출력 제한된 에너지가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저장되어 추후에 사용되던가, 아니면 전력이 필요한 기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